

수십억 풀무치떼 습격...해남 농지 20ha 초토화

산이면 일대...전남도 특별방제 90% 이상 소멸

전문가들 “고온다습 기후 탓”...외래종 유입 가능성

추수를 앞둔 해남 황금 들녘을 휩쓴 수십억 마리로 추정되는 풀무치떼가 외래종 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풀무치떼가 발견된 국내 사례가 없고, 발생 원인 등도 파악되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과 재발 우려도 낳고 있다.

◇해남 ‘곤충의 습격’=최근 해남군 산이면 덕호마을 일대는 5ha와 친환경 간척 농지 20ha에서 수십억 마리로 추정되는 0.5~4cm 길이의 풀무치떼가 나타나 벼를 갉아먹고 있다.

이곳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8월23일부터 풀무치가 발견되기 시작했고, 갑자기 개체 수가 늘자 같은 달 26일 군청에 신고했다.

해남군은 며칠 사이에 풀무치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지난 29일 피해지역과 주변 수로, 비농경지 등 30ha에 대해 광역 살포기를 활용해 긴급방제에 나섰다.

애초 메뚜기로 알려졌지만 농촌진흥청의 확인 결과, 풀무치로 판명됐다.

이 풀무치떼는 추수를 앞둔 벼와 수수 등을 때려 지어 다니며 갉아먹어 일대 논이 속대밭이 됐다. 정확한 피해액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풀무치 수가 많다 보니 농가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 것으로 우려된다.

해남군은 1차 방제 후 개체수 중 50% 정도가 죽거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방제를 할 계획이다.

◇사상 초유의 풀무치 피해=과거 풀무치가 공항 인근에서 무더기로 발생해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한 적은 종종 있었지만 해남의 경우처럼 떼로 몰려다니며 농작물 피해를 준 국내 사례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추수 전 박멸과 함께 확산·재발 여부 등도 관건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 탓에 풀무치가 대량 번식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과 대책은 내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풀무치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 해 식물과 비슷한 녹색·황색의 보호색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해남에서 발견된 풀무치는 등색이 대부분 검은 계열이기 때문에 “번식력이 좋은 외래종이 유입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친환경 단지 인근에 가축 먹이인 조사료를 생산하는 곳이 많아 해외에서 조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 외래 풀무치가 유입됐다는 것이다.

이에 해남군은 외래종 여부를 밝히기 위해 전문가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풀무치 색깔이 과거 발견됐던 것과는 너무 달라 외래종 가능성이 있지만 수가 많으면 보호색을 띠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외래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지난 31일 풀무치 출현으로 피해가 발생한 해남 산이면 구성지구 간척지를 방문해 농업인과 방제 관계자를 격려하고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와 해남군은 지난 28일 방제 신고



지난 29일 정체불명의 풀무치떼(작은 사진)가 덮친 해남군 산이면 덕호마을 간척농지에서 군 관계자가 긴급방제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 제공>

이후 31일까지 발생 지역과 인근지역 60ha를 대상으로 유기농 단지는 친환경 약제로, 일반농지와 수로 등에는 화학농약

으로 4차례 방역을 펼쳐 90% 이상 방제된 상태다. 도는 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예찰을 강화하면서 추가 방제를 실시하

고 있으며, 농식품부에는 돌발 병해충 긴급 방제비 지원 3억원을 건의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광주·전남 인구 2030년엔 5만명 이상 줄어든다

호남통계청 ‘2013 사회지표로 본 호남·제주’

전남 고령인구, 광주·전남 대학 진학률 전국 상회

2030년이 되면 광주·전남의 인구가 지금보다 5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남은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해 4만여명이 줄 것으로 보인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30일 발표한 ‘2013년 사회지표로 본 호남·제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30년 광주전남의 인구는 2013년보다 5만5000명이 감소한 222만

5000명으로 추산됐다.

광주는 151만8000명에서 150만8000명에서 1만명이, 전남은 176만2000명에서 171만7000명으로 4만5000명이 각각 줄어든다고 예상했다.

201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광주 10.1%로 전국 평균(12.2%) 보다 낮았지만 전남은 21.4%로 크게 웃돌았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광주는 77.8세로 전국 평균(77.8세)과 같았지만 전남은 76세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여자는 광주가 83.6세로 전국 평균(84.7세)보다 낮았고 전남은 85.2세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2013년 한해 혼인·이혼·재혼 현황은 광주 8820건, 2924건, 1557건으로, 전남은 9995건, 4096건, 2844건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의 외국인 수(등록외국인)는 4만101명(광주 1만5557명, 전남 2만4544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1595건(광주 537건, 전남 1058건)으로 조사됐다.

사망 원인의 1위는 암으로 광주는 10만 명당 133.5명, 전남은 230.2명으로 집계됐다. 2위는 뇌혈관질환(광주 44.8명, 전남 87.9명), 3위 심장질환(광주 38.6명, 전남 81.3명) 등의 순이었다.

대학진학률은 광주(78.7%), 전남(76.0%) 등 모두 전국 평균(70.7%)을 넘어섰다.

사교육비(학생 1인당 월평균)의 경우 광주(23만9000원)는 전국 평균(23만9000원)과 같았지만 전남(16만8000원)은 크게 낮았다. /김대성기자 bigkim@

지방공기업 연봉 1위 ‘광주도시철도’

2984만원...전남개발공사, 2790만원 4위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전국 지방공기업 중 신입사원 연봉을 가장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개발공사도 전국에서 4 번째로 연봉이 높았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은 지난 31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의 지난해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2468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방 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클린아이’에 등록된 지방공사 중 54개사의 경영정보를 토대로 신입사원 연봉을 분

석한 결과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2600만~2800만원 미만’이 35.2%로 가장 많았고, ‘2200만~2400만원 미만’(25.9%), ‘2400만~2600만원 미만’(18.5%), ‘2000만원 미만’(9.3%), ‘2000만~2200만원 미만’(7.4%), ‘2800만원 이상’(3.7%) 순이었다.

신입사원 연봉이 가장 많은 지방 공기업은 광주도시철도공사로 2984만원이었다. 구리도시공사(2905만원), 대구도시공사(2798만원), 전남개발공사(279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병사, 평일에도 가족 면회

국방부, 열린 병영문화 시범 운용...공용 휴대전화 사용도

일반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은 1일부터 평일에도 애인이나 가족을 면회할 수 있게 됐다.

또 병사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 사용도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31일 “9월을 국민이 신

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시적의 달로 선포한다”면서 “지난 25일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연내 조치할 수 있는 4가지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부대 병사들에게 휴일뿐 아니

라 평일에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평일 면회제도가 시행된다. 평일 면회는 일과 후에 가능하며 면회 시간과 장소, 면회 대상 등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장성급 지휘관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전방 GOP(일반전초)에 근무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작전 임무 및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휴일에만 면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GOP 경계부대는 임무 수행과 지리적 여건 때문에 지금까지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GOP 경계부대 장병이 겪는 사회·문화·

심리적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병과 일병, 상병, 병장 계급별로 공용 휴대 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운용된다. 같은 생활관의 병사 계급별로 대표자를 지정해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한 뒤 같은 계급의 병사가 대표자에게 이 전화를 가져다 사용하는 방안이다.

국방부는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부대별로 개방행사를 시행해 부모가 군대에 있는 자식과 함께 식사하고 잠도 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아시아문화전당 내년 8월 완공키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전 면개관을 불과 한달 앞둔 내년 8월 완공된다.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문화전당’을 10월 완공 못한다’는 보도 <광주일보 30일자 1면>와 관련, 자료를 내고 “보존 건물(옛 전남도청, 민원실 등 민주평화교류원을 구성하는 6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과 콘텐츠 제작·설치를

2015년 8월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어 “공사기간에 대해 당초에는 6개 건물에 대한 순차적 공적으로 15개월로 예상했지만, ‘유사공정 통합을 통해 전체 건물에 대한 동시다발적 공사를 재개할 시에는 9개월 내로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2015년 9월 개관 일정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배당금 ⇒ 5.0% (한시 정제(금리 1년 3%)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사업소 720-2880 활산지점 364-7557

1,477만원에 드리는 특가이벤트!!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경품 추첨일 : 2014년 10월 26일 일요일 오후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신청 기간 : 2014년 10월 24일까지

●응모 대상 :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건 이상 신청, 유지고객

●응모요건부조건 : 자동이체 3건당 1매 교부

경품안내

1등 50인치 벽걸이TV	3명
2등 드럼세탁기	3명
3등 제습기	9명
4등 쿠키압력밥솥	12명
5등 자전거	12명
6등 생활용품세트(대)	90명
7등 생활용품세트(중)	150명
8등 아자상	1200명

※모든 금사우클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6등까지는 참석자 본인에 한하여 경품 지급합니다.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경품행사는 응모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서문 본점 671-5000 (KBC광주방송국 앞)

양림 지점 652-9203 (기독병원 옆)

활산 지점 364-7557 (대성초교사거리)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하나로대출

한도는 높게

Up&Down

금리는 낮게

집 담보도
상가 담보도
전세보증금 담보도
자동차 할부금 대출도
카드론·현금서비스도

모든 대출을 하나로
통합관리 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정부보증서대출 햇살은 최고 2,000만원

광주원광신협

공동점 227-4474 금호점 383-4474 풍암점 653-4474

公告

金海金氏 三賢派 湖南大同譜 編纂

(김해김씨 삼현파 호남대동보 편찬)

甲子譜(1984년 발간) 이후 30년만에 호남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 2014년 3월 30일부터 수단을 접수하고 있어 일가분들께서는 서로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으나 종친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金海金氏 三賢派 湖南大同譜 編纂事務所

광주 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김병원 2층)

TEL : 062)265-8033

HP : 010-6380-4757

金海金氏 三賢派 湖南大同譜 編纂委員會